

대학가 소식



서정대학교는 1일부터 3일간 캠퍼스 교육 축제인 '2023 서정 엑스포'를 개최한다. (사진=서정대학교)

서정 엑스포 개최... '서정대 역할과 도전'

서정대 캠퍼스 교육 축제

서정대학교는 1일부터 3일간 캠퍼스 교육 축제인 '2023 서정 엑스포(SEOJEONG EXPO)'를 개최한다.

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서정 엑스포는 '글로벌 대학의 리더, 서정대학교의 역할과 도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제 세미나, 다양한 교육 성과 전시회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대학과 글로벌 △대학과 지역 사회 △대학의 성장과 가치공유라는 3개의 주제에 대한 릴레이 세미나를 통해 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고 지역과 함께 세계로 도전하는 '글로벌 대학'으로의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학내 캠퍼스 행사장에서는 학생 중심의 다양한 진로체험, 창업경진대회, 친환경 캠페인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혁신지원사업의 캡스톤 디자인, 교수학습 등의 다양한 교육성과 전시가 학내 곳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조영욱 기자



인천대학교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인천시 시·구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인천환경아카데미 고위관리자과정' 수료식을 지난달 31일 인천시의회에서 진행했다. (사진=인천대학교 녹색환경지원센터)

'인천환경아카데미 관리자과정' 수료식

인천대 녹색환경지원센터

인천대학교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인천시 시·구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인천환경아카데미 고위관리자과정(제27기)' 수료식을 지난달 31일 인천시의회에서 진행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지난 4월25일을 시작으로 월 1회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대면으로 진행됐으며 △인천의 미세먼지 발생과 영세사업장의 ESG 적용 방안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인천 △백령·대청국가지질공원 소개 △혁신적 인천탄소중립 추진방향과 인천환경공단의 역할 △지속가능한 디자인 △ESG의 전개과정

과 최근의 쟁점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31일 인천대학교 이인재 대외협력부총장님의 "ESG의 전개과정과 최근의 쟁점" 강의를 마지막으로 6개월의 교육과정이 성황리에 종료됐다.

해당 교육과정을 성실히 수강한 김대중·석정규·신종식·이순학·정해권 인천시의원, 강연숙·여명자·유정옥·정유정 부평구 의원에 인천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됐으며, 본 교육의 필요성을 널리 홍보하고 적극 참여해 주신 정유정 부평구 의원에겐 감사장이 전달됐다.

유동수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따스하게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소방공무원 2억원 전달

경기 사랑의열매는 1일 오후 경기대학교 텔레컨벤션센터에서 '따뜻한 동행 경기119'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및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따뜻한 동행 경기119'는 경기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자발적 참여로 매일 119원을 적립해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경기소방의 대표적인 사랑 나눔 캠페인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캠페인으로 현재 2억1000만원의 소중한 기부금이 모였고 이날 제막식을 시작으로 캠페인 참여대상을 전 도민으로 확대해 내년까지 5억원 모금을 목표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 캠페인으로 모인 기부금은 재난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도움이 손질이 필요한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되며 올해 화재피해가구 20가구에 6000만원을 지원한다.

이 날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은 제61



경기 사랑의열매는 1일 오후 경기대학교 텔레컨벤션센터에서 '따뜻한 동행 경기119'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및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경기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이 자발적 참여해 모은 2억1000만원을 기부했다. (사진=경기 사랑의열매)

주년 소방의 날을 기념해 전 직원 어울림 마당 '제1회 경기소방 예술제' 행사의 부대행사로 진행됐으며, 조선희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 신희철 경기도의용소방대연합회장, 염수현 경기도의용소방대연합회 여성회장, 송병현 경기도북부의소대연합회장, 안계일 경기도의회 안전

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인옥 경기 사랑의열매 회장, 김효진 경기 사랑의열매 사무처장과 신임소방사관 교육생·소방·의소대 등 900명이 참석했다.

이날 제막식과 함께 경기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6000여 명이 지난달까지 모은 기부금 2억1000만원의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다.

조선희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경기도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모두가 함께하면 아프고 힘든 이웃들에게 큰 위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앞으로도 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인창 기자

아동·청소년 병들게 하는 'NAP' 즉각 중단 촉구

인천자유평화시민연대 '급진적 성교육 부추겨'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NAP)'이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하고 건강한 가족을 해체 시키고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급진적 성교육을 부추기고 있다며 전면 수정이나 폐지를 촉구하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와 인천자유평화시민연대(인평연)등 65개 시민단체는 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안에는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하고 건강한 가

족을 해체하는 나쁜 내용이 담겨있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사업 현장점검에 따르면 서울시내 청소년성문화센터들이 청소년들에게 '성적욕망 구체화하기'를 강요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지나친 성적 표현 등 성적 호기심을 과하게 자극하는 내용 등 급진적인 음란성 교육, 즉 '포괄적 성교육'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이런 지경에도 법무부의 제4차 NAP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을 계속하는 동시에 감사역량 강화 등 서비스 질 제고를 추진하겠다"는 내용

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청소년성문화센터의 폐기를 논하기는 커녕 강화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경이니 국민들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통탄했다.

더욱이 제4차 NAP는 청소년 임신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은 하나도 없고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어 성장기 청소년들의 탈선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NAP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성인권' 교육에 대해서도 '성인권' 교육이란 한마디로 미성년자도 성

인권을 이의 아동의 '프리스트'를 인권의 교육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발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인희 인천자유평화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법무부의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우리 아동과 청소년들 떠나가 국가 미래를 위해서라도 철폐되어야 한다"며 "건강하게 자라나야 할 아동·청소년을 음란·퇴폐 성교육의 희생양으로 만드는 나쁜 4차 NAP를 강력히 규탄하며 양성평등한 혼인·가족제도의 해체를 옹호·조장하는 NAP 추진을 즉시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유동수 기자

'김포시 서울 편입' 주민들 대체로 '긍정적'

대다수 시민 '집값 상승' 기대 일부 "기피시설 올 수도" 우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한지 4일째 김포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대다수 시민들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일부 시민들은 '서울시를 굳이 키울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이다.

2일 김포시 사우중로, 김포시청이 위치한 김포시 사우중로에는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이 걸어놓은 '국민의힘이 김포의힘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편입 국민의힘 당론추진'이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이처럼 국민의힘 지역당협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을 위한 군불을 때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민 반응은 해당 사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이다.

김포 사우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서울시가 혜택이 좀 크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포함되면 좀 뒤처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른 시민은 "서울시 편입은 무조건 해야 한다"면서 "어차피 경기도나 인천보다는 서울이 생활권이 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구래동 한강신도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계속 김포시민으로 살다가 서울시민이 된다고 생각하니 좀 거부감이 든다"고 말했다. 다른 시민 또한 "서울 편입이 진짜로



김포시 사우중로에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의 '김포시 서울편입'과 관련된 현수막이 걸려있다.

될 거라고 생각은 안한다"며 "반약 진짜한다고 하더라도 기피시설이나 잔뜩 들어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김포시 서울 편입'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30일 김포한강차량기지서 열린 '김포 교통대책 간담회'에서 "김포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거친다면 우리 당은 적극적으로 당정책의 틀을 통해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다.

이에 국민의힘은 '수도권 주민 편의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김포시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와 입법절차 등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병수 김포시장도 서울시에 편입되는 것이 교통 등 산적인 문제를 해결해 김포시민들의 편익이 향상될 것이라며 다음주 초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서울편입에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논의할 계획을 밝혔고 이달 중으로 김포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대면을 통한 여론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재근 기자

'정자교 붕괴' 반면교사... 성남시 안전감시단 활동

기반시설 안전감시단 발대 3개 구 소속 68명으로 구성

성남시는 2일 위기관리 대응력을 강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성남시 기반시설 안전감시단(안전감시단)' 통합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안전감시단은 성남시 지역 내 교량·차도·빗물받이·가로수·옹벽 등 기반 시설물을 일상생활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해당 부서로 제보하는 활동을 한다.

안전감시단의 제보를 받은 시설물 담당 부서는 신속히 현장에 나가 안전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안전감시단은 그룹체량방을 운영해 즉시 현장 제보에 이는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는 활동 상황들이 실시간 공유된다.

이날 출범한 안전감시단은 수정구 262명, 중원구 186명, 분당구 237명 등 총 685명으로 구성됐다.

지난달 6일 분당구 안전감시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24일 중원구, 26일 수정구에 이어 이번에 성남시 통합 발대식을 개최하고 시 차원의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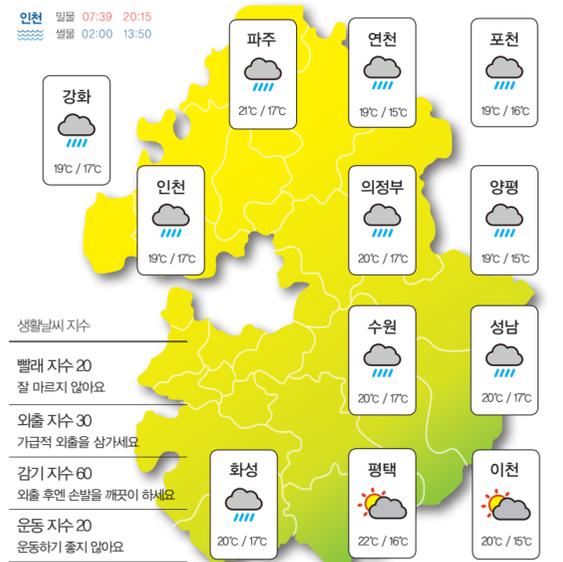
안전감시단원들은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청소대행업체 직원, 공동구 유지관리 업체 직원, 구청 소속 환경관리원 및 현장업무 근로자(도로관리원·준설원·주차관리원 등) 등으로 다양하게 꾸려졌다.

신상진 시장은 "일상 속 관찰과 감시 운영체계 확립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성남시 기반시설 안전감시단 통합 발대식을 열게 됐다"면서 "이번 발대식으로 성남시는 기반 시설 위험 요인에 대한 신속한 제보 및 조치 체계를 확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시단원들은 안전 현미경처럼 위험 요인을 관찰하고 '안전 나팔수'처럼 제보해 시민을 지키는 '안전 파수꾼'으로 활약하게 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시민들과 함께 안전한 성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영무 기자

오늘의 날씨

대체로 흐리고 가을비가 내리겠다.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18도, 낮 최고기온은 19~26도가 예보됐다.



생활 날씨 지수: 빨래 지수 20, 잘 마르지 않아요. 외출 지수 30, 가끔씩 외출을 삼가세요. 감기 지수 60, 외출 후엔 손발을 깨끗이 하세요. 운동 지수 20, 운동하기 좋지 않아요.